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Vol. 18, No. 5, pp. 176~189 (201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관한 효과적 교육 및 홍보 방안 연구

홍 진 임 · 정 희 선¶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식생활문화전공

A Study on the Effective Educational and Promotional Strategies for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Jin-Im Hong · Hee-Sun Jeong¶
Major in Traditional Dietary Life Food, Graduate School of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 educational and promotional strategies for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on the basis of the survey conducted on parents. First of all, its result showed that most parents are well aware of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They answered that, when choosing safe favorite food for children,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e article "Regulations on the standards for children's favorite food should be reinforced." As for the index of safety management for children`s dietary life, most respondents think safety the most important; housewives and nuclear family members choose safety (p<.01), while large family members do nutrition. For the question asking how they get the information on safety management for children`s dietary life, most of them answered that they generally use mass media, family and friends as a reference. Those with high income usually get the information from special books, those between 30s and 50 from mass media, and those with college graduates from civil social groups (p<.05). In case of taking the safety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s dietary life, they told that the most necessary information is concerned with hygienic dietary life and nutrition labeling on processed food; housewives are interested in the latter, while working people in the former (p<.05). As a method of informing parents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mass media such as TV and radio, and school education are suggested in this surve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at mass media be considered as the most effective way of promoting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nd getting information concerning the law.

Key words: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children`s dietary life, safety management, education of safe dietary life, mass media, food safety education, safety index

Ⅰ. 서 론

성장기 어린 시절의 식생활은 성인이 된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를 키우는 보호자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린이 식생활 보호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

¶ : 정희선, 010-9358-0922, sunnyj@sm.ac.kr, 서울 용산구 효창원길 52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음식연구원 (140-742)

러나 최근 영양불균형, 영양위해성분 섭취증가, 신체활동 저하 등 어린이의 생활양식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사회, 생활습관 요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03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한 후 2006년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의 해'로 정하였고, 2007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08년 3월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여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Yi SJ 2009: Chung HR 등 2011). 특별법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위해 영양성분의 섭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가공식품업체의 우수제품 생산을 유도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품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Choi SD 등 2008).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위생기준 설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Yun JH 등 2008)가 진행되어 기초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어린이를 위해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 판매, 공급하는 환경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해 식생활 안전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제23조), 시·군·구별로 식생활 안전 및 영양수준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는데(제24조),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Special act on children eating habit safety management)은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Chung HR 등 2011).

여러 가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식생활 관련 법규가 어린이 건강을 위해 제대로 실행되고 지켜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의 식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보호자의 의무일 뿐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 제정 뿐 아니라 어린이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부모가 얼마나 잘 숙지하고 주요 규정에 대해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주요한 사안이고 이러한 법을 제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주요 항목의 인지도, 어린이 기호식품 선택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에 대한 인지도, 보호자가 알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정보 취득 경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관련 교육 주제에 대해 조사하였고,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법규에 대해서는 널리 알리고 인지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홍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세계 주요 국가는 어린이 식생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를 하고 있다. 미국은 어린이 영양관리 및 학교 내 정크푸드 규제 강화를 위해 기존 어린이 영양법을 '어린이 영양 증진 및 학교 급식 보호법' 으로 개정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비만 예방과 우유 섭취를 권장하기 위하여 학교의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금지하였는데, 비만방지를 위한 학교 환경 개선의 좋은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Choi MJ 등 2010). 영국은 2008년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요리수업을 의무화 하고(Kim BK 등 2008) 영국의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는 오전 9시 이전 어린이 TV프로그램에서 지방, 당, 소금이 많은 음식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어린이 비만 예방을 위해 학교 내 모든

식음료 자동판매기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침)을 볼 때 우리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5년 '식육기본법'을 제정하고, 교육의 3대 목표인 지육(智育), 덕육(德育), 체육(體育)에 식육(食育)을 더하고 식생활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태리와 프랑스에서는 미각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초등 교육과정 전 학년에 걸쳐 건강 식생활에 관한 내용을 연계성 있게 교육하고 있다(Choi MJ 등 2010).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식생활 교육 지원법'을 통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0년 4월에 9개 부처 차관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국가 식생활교육위원회가 환경, 건강, 배려를 핵심가치로 삼고, 식생활 교육 인프라와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구축, 한국형 식생활 실천 및 체험을 바탕으로 배려와 감사하는 식생활을 골자로 하는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Choe JS 등 2010).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정책의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식생활에 기인한 어린이 비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의 발달과 가공식품 및 외식의 섭취가 증가하여 어린이의 식생활 환경이 변화되었고, 학교 주변에는 여전히 식품안전상 위해가능성이 높은 식품섭취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의 식생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이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으로 학교 주변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조리·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규제, 알기 쉬운 영양표시제,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는 소비자에 대한 영양교육의 강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책은 단독법의 제정이나 종합적인 실행계획 수립에서 다른 선진 국가 보다 앞서가고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모델 사례가 되고 있다. 향후 규제 중심보다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역량 강화와 이를 지지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수반되고, 식품산업체와의 협력 및 상생을 통하여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Kim HR 2010).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주변 대도시의 학부모와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5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380부 중 조사 결과 응답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316명의 응답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Yun JH 등 2008, Bang DH 2006, Hwang EJ 2008)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고, 설문지를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관한 문항, 어린이 기호식품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에 관한 문항,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교육홍보에 관련한 문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관련 법규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로 구성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점, '보통이다'는 2점, '그렇다'는 3점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어린이 식

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중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선택 시 항목 인지도와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중요항목 인지도에 대한 조사를 위해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12.0)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월수입과 연령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주요항목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고 각 변인들 간의 유의차이 검증은 χ^2-test, t-test 및 일원량 분산분석(one-way ANOVA),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증을 하였고, 특별법 인지도의 항목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살펴보았다.

Ⅳ.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총대상자는 316명이었고, 직업은 전업주부가 51.9%, 직장인은 48.1%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의 경우는 핵가족이 84.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월평균 외식회수는 3회 미만이 33.9%, 3회 이상이 66.1%로 조사되었으며, 월 소득의 경우 200만 원 이상~400만원미만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30세 이상~40세미만이 43.0%, 40세 이상~50세미만이 43.4%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최종학력의 경우는 대졸(전문대포함) 76.9%로 조사자의 대부분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인지도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항목 인지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주요 항목 인지도는 유의적 차이가 있는 월 소득과 연령을 기준으로 <Table 2>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인 학부모는 특별법 여러 항목 중 정서적 유해식품의 판매진열 금지, 어린이 대상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questionnaire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
Job	none	164(51.9)
	worker	152(48.1)
Family members	single generation family	266(84.1)
	multi generation family	50(15.9)
Average frequency in dining out	less than three times a week	107(33.9)
	more than three times a week	209(66.1)
Monthly income (million won)	< 200	8(2.5)
	200 ~ 400	116(36.7)
	400 ~ 600	103(32.6)
	600 ≤	89(28.2)
Age(years)	< 30	12(3.8)
	30 ~ 40	136(43.0)
	40 ~ 50	137(43.4)
	50 ≤	31(9.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7(11.7)
	college	243(76.9)
	graduate school or higher	36(11.4)

식품 전담 관리원 역량 강화, 어린이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식품표시제도 도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기반의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에 대한 캠페인 및 교육·홍보 활성화, 아이와 학부모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영양교육 필요성에 대한 문항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 소득에 따라 200만 원 이상~400만원미만과 600만 원 이상의 소득 수준에서 어린이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식품표시제도 도입, 영양표시 및 정보의 초등교과내용 추가 항목을 200만원 미만, 400만 원 이상~600만원미만의 소득층보다 더 많이 인지하고 있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5). 연령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표시 및 정보의 초등교과내용 추가와 모범적 활동을 하는 식품업체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에 대한 문항에 대해 40세 이상~50세 미만이 가장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40세 미만 층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50세 이상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인지도가 유의적으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p<.0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대한 학교주변 판매업자 인식조사를 한 Lee SS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하여 고시된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와 판매제한·금지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16.0%로 나타났고, '조금 알고 있다'가 45.1%,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는 22.9%, '모르고 있다'가 16%로 나타났다. 정서저해식품의 기준은 46.3%가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6%가 정서저해식품 기준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고, 33.1%의 응답자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유해식품의 판매진열 금지나 정서저해식품 기준과 같은 판매자 관련 법 내용을 판매자의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 부분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항목 간 인지도 상관관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항목 간 인지

<Table 2> The level of awareness about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Mean±SD

	Monthly income(million won)					Age(years)					Total
	< 200	200 ~ 400	400 ~ 600	600 ≤	F(P)	< 30	30 ~ 40	40 ~ 50	50 ≤	F(P)	
Standards of nutrition	2.92±.289	2.85±.379	2.79±.474	2.76±.532	.993(.396)	2.69±.479	2.82±.442	2.84±.428	2.74±.567	.857(.464)	2.81±.453
Full-time managers	2.75±.452	2.83±.402	2.82±.434	2.83±.377	.148(.931)	2.75±.447	2.85±.381	2.83±.398	2.74±.511	.879(.452)	2.82±.407
Prohibition on displaying harmful food	2.75±.452	2.88±.353	2.84±.419	2.87±.406	.520(.669)	2.81±.403	2.85±.381	2.90±.353	2.76±.554	1.146(.331)	2.86±.393
Qualified managers	2.75±.452	2.81±.436	2.88±.385	2.88±.328	.960(.412)	2.81±.403	2.86±.393	2.85±.398	2.82±.387	.107(.956)	2.85±.393
Food labeling	2.83±.389[a1)]	2.95±.222[b]	2.86±.426[a]	2.96±.188[b]	2.700(.046)*	2.88±.342	2.87±.379	2.95±.255	3.00±.000	2.372(.070)	2.92±.308
Infrastructures	2.92±.289	2.88±.353	2.90±.326	2.87±.341	.238(.870)	2.81±.403	2.87±.336	2.91±.335	2.88±.327	.570(.635)	2.89±.338
Addition of a curriculum	2.58±.515[a]	2.85±.379[b]	2.71±.514[ab]	2.84±.398[b]	3.150(.025)*	2.75±.577[ab]	2.75±.468[ab]	2.87±.376[b]	2.68±.475[a]	2.764(.042)*	2.79±.442
Promotion of education	2.75±.452	2.90±.306	2.82±.434	2.82±.387	1.257(.289)	2.75±.447	2.83±.419	2.88±.325	2.82±.387	.875(.454)	2.84±.380
Nutrition education for parents	2.75±.452	2.87±.362	2.84±.370	2.83±.377	.494(.686)	2.81±.403	2.85±.381	2.85±.358	2.82±.387	.093(.964)	2.84±.371
Stands only for food of good quality	2.75±.622	2.82±.429	2.80±.425	2.81±.480	.100(.960)	2.81±.544	2.80±.453	2.82±.404	2.76±.554	.147(.932)	2.81±.448
Time limit on advertisement	2.42±.515	2.57±.636	2.44±.664	2.79±.474	1.153(.328)	2.31±.602	2.52±.636	2.52±.657	2.65±.544	1.027(.381)	2.52±.635
Development of teaching tools	2.50±.522	2.78±.439	2.61±.546	2.86±1.231	2.137(.095)	2.69±.479	2.68±.514	2.81±1.000	2.65±.597	.764(.515)	2.73±.765
Nutrition labeling of sellers	1.67±.778	1.37±.679	1.44±.733	1.52±.786	1.049(.371)	1.44±.727	1.55±.823	1.34±.638	1.44±.660	1.711(.165)	1.44±.730
Display of nutrition components	2.42±.669	2.35±.737	2.33±.755	2.30±.808	.124(.946)	2.44±.629	2.31±.743	2.37±.781	2.26±.790	.313(.816)	2.34±.757
Safety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s	2.58±.515	2.85±.355	2.75±.455	2.77±.451	2.162(.092)	2.75±.447	2.77±.443	2.84±.365	2.68±.535	1.721(.163)	2.79±.425
Purchase after confirming the certification	2.42±.515	2.41±.734	2.29±.703	2.39±.746	.583(.626)	2.50±.632	2.35±.688	2.28±.762	2.65±.646	2.562(.055)	2.36±.719
Confirmation of logos for a health-friendly company	2.67±.492	2.22±.720	2.26±.747	2.28±.738	1.410(.240)	2.50±.632	2.20±.704	2.27±.767	2.38±.697	1.235(.297)	2.26±.726
Prohibition on the sale of emotionally harmful products	2.50±.674	2.85±.422	2.82±.411	2.76±.532	2.487(.061)	2.88±.342	2.74±.519	2.87±.364	2.76±.606	1.783(.150)	2.80±.464
Regular promotion of school education	2.83±.389	2.84±.409	2.75±.476	2.81±.397	.878(.453)	2.75±.447	2.77±.456	2.86±.391	2.74±.448	1.329(.265)	2.80±.428
Designation of a health-friendly company	2.92±.289	2.83±.389	2.77±.444	2.78±.443	.527(.664)	2.75±.44[ab]	2.78±.434[ab]	2.87±.342[b]	2.65±.544[a]	2.875(.036)*	2.80±.416

*p<.05

1) Means in each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D) of ratio using 3-point scale(1: negative, 3: positive)

도 상관관계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항목은 서로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매자 영양표시 유무에 대한 항목은 광고시간 제한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들과 유의적인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관리원 역량강화와 식품표시제도 도입의 경우 대부분 항목들과의 관계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관리원 역량강화와 유해식품진열금지의 높은 정의 상관관계(r=0.620)로부터 '어린이 대상 식품 사후관리 담당 공무원 및 전담관리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관리원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와 진열을 금지해야 한다'는 유해식품 진열금지와 관련된 부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모영양교육은 '소비자 단체와 연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에 대한 캠페인 및 교육·홍보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교육홍보 활성화가 높은 정의 상관관계(r=0.572)를 보여 부모교육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홍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3.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선택을 위한 중요 항목 인지도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선택을 위한 중요 항목 인지도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항목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규격을 강화해야 한다(3.68)였고, 다음으로 가공식품의 유해 첨가물 사용을 표시해야 한다(3.18), 학교 주변 어린이 대상 식품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2.98), 가공식품의 열량표시, 영양표시를 강화해야 한다(2.81), 가공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시킨다(2.34)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가족구성원, 월외식횟수, 연령, 학력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선택을 위한 중요항목 인지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학교 주변 어린이 대상 식품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에 대해서 전업주부 보다 직장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p<.05), '가공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 시킨다'에 대해서는 전업주부가 직장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p<.01). 가족구성원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규격 강화'에 대해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월외식횟수에 따라 '가공식품의 열량표시, 영양표시를 강화해야 한다'에 대해 월 3회 이상 외식하는 집단이 월 3회 미만의 집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1), '가공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교육과 홍보를 활

<Table 3> Correlation between the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nd the awareness of the relevant act

Item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Standards of nutrition	1.00											
2. Full-time managers	.455**	1.00										
3. Prohibition on displaying harmful food	.401**	.497**	1.00									
4. Qualified managers	.372**	.466**	.620**	1.00								
5. Food labeling	.480**	.416**	.480**	.473**	1.00							
6. Addition of a curriculum	.248**	.291**	.343**	.313**	.435**	1.00						
7. Promotion of education	.419**	.418**	.469**	.458**	.515**	.471**	1.00					
8. Nutrition education for parents	.315**	.343**	.284**	.295**	.388**	.366**	.572**	1.00				
9. Stands only for food of good quality	.351**	.422**	.348**	.338**	.368**	.360**	.439**	.449**	1.00			
10. Time limit on advertisement	.147**	.126*	.185**	.217**	.139*	.192**	.166**	.170**	.311**	1.00		
11. Nutrition labeling of sellers	-.263**	-.130*	-.178**	-.119*	-.233**	-.110	-.129*	-.085	-.126*	.054	1.00	
12. Prohibition on the sale of emotionally harmful products	.321**	.337**	.438**	.358**	.331**	.282**	.439**	.302**	.413**	.177**	-.220**	1.00

* p<.05, ** p<.01

<Table 4> The awareness about the main items for choosing safe favorite food for children

Mean±SD

	Category	A. Strengthening standards of children's favorite food	B. Labeling calorie and nutrition of processed food	C. Labeling harmful additives of processed food	D. Close supervision of food for children around school	E. Promotion of educating additives of processed food
Job	none	3.73±1.446	2.70±1.184	3.20±1.184	2.80±1.401	2.55±1.512
	worker	3.64±1.417	2.92±1.284	3.15±1.217	3.18±1.318	2.11±1.388
	t(p)	.542(.588)	-1.583(.114)	.369(.712)	-2.438(.015)*	2.678(.008)**
Family members	single generation family	3.72±1.438	2.80±1.227	3.16±1.172	2.93±1.396	2.38±1.467
	multi generation family	3.50±1.389	2.86±1.294	3.26±1.337	3.26±1.209	2.12±1.466
	t(p)	.989(.323)*	-.330(.741)	-.532(.595)	-1.553(.121)	1.148(.252)
Average frequency in dining out	less than 3 times a week	3.62±1.432	2.54±1.192	3.21±1.281	2.99±1.384	2.63±1.520
	more than 3 times a week	3.72±1.432	2.94±1.239	3.16±1.156	2.98±1.369	2.19±1.422
	t(p)	-.593(.554)	-2.789(.006)**	.400(.689)	.060(.952)	2.459(.015)*
Monthly income (million won)	< 200	2.88±1.553	3.38±.916	3.13±1.642	2.88±1.808	2.75±1.389
	200 ~ 400	3.61±1.431	2.68±1.227	3.23±1.175	2.97±1.401	2.52±1.546
	400 ~ 600	3.65±1.480	2.69±1.245	3.14±1.253	3.18±1.349	2.34±1.397
	600 ≤	3.89±1.344	3.06±1.228	3.16±1.137	2.79±1.310	2.07±1.429
	F(p)	1.580(.194)	2.518(.058)	.136(.938)	1.376(.250)	1.808(.146)
Age (years)	< 30	3.42±1.621	2.75±1.288	3.42±1.379	3.33±1.231[a1)]	2.08±1.311
	30 ~ 40	3.65±1.473	2.85±1.256	3.13±1.160	3.15±1.349[a]	2.21±1.422
	40 ~ 50	3.63±1.404	2.67±1.237	3.16±1.232	2.96±1.414[a]	2.55±1.524
	50 ≤	4.16±1.241	3.23±1.055	3.35±1.170	2.23±1.087[b]	2.03±1.402
	F(p)	1.386(.247)	1.820(.143)	.457(.713)	4.262(.006)**	1.908(.12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35±1.531[a]	2.68±1.132	3.38±1.277	2.95±1.413	2.65±1.585
	college	3.65±1.428[a]	2.79±1.272	3.18±1.189	3.04±1.377	2.33±1.454
	graduate school or higher	4.28±1.186[b]	3.03±1.082	2.94±1.170	2.67±1.287	2.08±1.422
	F(p)	4.276(.015)*	.795(.452)	1.204(.301)	1.160(.315)	1.378(.254)
Total		3.68±1.430	2.81±1.236	3.18±1.198	2.98±1.372	2.34±1.468

*p<.05, **p<.01

1) Means in each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D) of ratio using 5-point scale(1: negative, 5: positive)

성화 시킨다'에 대해서는 월 3회 미만이 월 3회 이상의 집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연령에 따라 '학교 주변의 어린이 대상 식품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에 대해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1). 학력에 있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규격을 강화해야 한다'에 대해 학력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Kim JH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의 식품구매 시 판단 요소로 '건강에 좋은 성분의 포함 여부' 72.6%, '영양성분 내용' 67.1%,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59.1%, '제품의 맛' 57.3%, '수입 식품의 여부' 55.9%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부모는 물론 어린이들이 직접 식품을 구매할 때도 영양성분이나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규격 강화나 가공식품의 열량, 영양표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선택을 위한 중요 항목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형성이 확보되지 않아 Greenhouse-Geisser값으로 수정하였을 때, F=34.037로 항목 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규격을 강화해야 한다(3.68)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가공식품의 유해 첨가물 사용을 표시해야 한다(3.18)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가공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시킨다(2.34)는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선택에서 가장 소홀히 여기는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4.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분야에 대한 중요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분야에 대한 중요도 조사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5>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for the choice of safe favorite food for children

Source	Sum of square	df	MS	F-value	Tests of within-subjects contrasts[2)]
The lower bound estimate	307.649	1.000	307.649	34.037***	[1)]A>C>B, D>E
Greenhouse- Geisser	307.649	3.560	86.409	34.037***	

***p<.001
[1)]Refer to <Table 4> [2)]Duncan's Multiple Range Test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관련 문항을 크게 3개의 분야로 구분하였고 이에 대한 중요도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분야(2.48), 어린이 식생활 영양분야(1.82),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분야(1.7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사항 중 직업과 가족구성원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 따른 중요도는 전업주부(2.57)가 직장인(2.39)보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분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가족구성원에 따라 핵가족(2.54)이 확대가족(2.20)보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분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p<.01), 어린이 식생활 영양분야는 확대가족(2.02)이 핵가족(1.78)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1).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분야를 3가지로 구분하

<Table 6> The significance of the safety index for children's dietary life by category

Mean±SD

	Category	A. Safety	B. Nutrition	C. Awareness & practice
Job	none	2.57±.628	1.78±.665	1.65±.826
	worker	2.39±.702	1.86±.749	1.75±.848
	t(p)	2.304(.022)**	-.939(.348)	-1.036(.301)
Family members	single generation family	2.54±.633	1.78±.706	1.68±.818
	multi generation family	2.20±.782	2.02±.685	1.78±.932
	t(p)	2.879(.005)**	-2.280(.026)**	-.742(.458)
Average frequency in dining out	less than 3 times a week	2.50±.635	1.82±.724	1.68±.842
	more than 3 times a week	2.48±.687	1.81±.699	1.71±.835
	t(p)	.212(.832)	.107(.915)	-260(.795)
Monthly income (million won)	< 200	2.63±.744	2.00±.535	1.38±.744
	200 ~ 400	2.47±.715	1.79±.704	1.74±.825
	400 ~ 600	2.50±.608	1.83±.747	1.68±.843
	600 ≤	2.48±.676	1.82±.684	1.70±.858
	F(p)	.156(.926)	.227(.878)	.516(.672)
Age (years)	< 30	2.42±.669	2.00±.853	1.58±.793
	30 ~ 40	2.43±.674	1.88±.764	1.69±.821
	40 ~ 50	2.54±.653	1.74±.645	1.72±.855
	50 ≤	2.48±.724	1.84±.638	1.68±.871
	F(p)	.615(.606)	1.167(.323)	.123(.94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57±.647	1.78±.630	1.65±.857
	college	2.49±.670	1.81±.708	1.70±.831
	graduate school or higher	2.36±.683	1.89±.785	1.75±.874
	F(p)	.905(.406)	.235(.790)	.133(.875)
Total		2.48±.669	1.82±.707	1.70±.837

**p<.01
[1)] Means in each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D) of ratio using 3-point scale(1: negative, 3: positive)

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구형성이 확보되지 않아 Greenhouse-Geisser값으로 수정한 결과, F=68.794로 나타나 항목 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즉, 어린이 식생활 안전분야(2.48)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 식생활 영양분야(1.82),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분야(1.70) 순으로 중요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 및 교육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 조사결과는 <Table 8>과 같다. 대중매체(3.51)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가족 및 친구(3.16), 학교(2.87), 전문서적(2.81), 전문기관발행 홍보물(2.47), 문화센터(2.40), 시민사회단체(2.33), 관공서(2.27)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인 사항에 따라 월소득, 연령, 학력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월소득에 따른 정보취득 경로는 월수입이 높을수록 전문서적을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정보 취득 경로로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연령에 따른 정보취득 경로에서 30세이상~50세미만이 30세 미만과 50세 이상보다 대중매체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5). 학력에 따른 정보취득 경로에서 대졸(전문대 포함)의 경우 고졸 이하(2.14)와 대학원졸업 이상(1.94)보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정보 취득 경로로 시민사회단체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어머니 대상 유아의 올바른 섭식지도를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개발 요구도 조사를 한 Pyun JS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이나 식생활 관련 지식을 얻는 경로에 대해 TV/라디오가 37.8%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및 이웃이 24.5%, 인터넷이 15.3%, 요리책/서적이 12.2%. 신문/잡지가 9.2%. 전문가가 1.0%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보 취득 경로에서 대중매체(3.51), 가족 및 친구(3.16), 학교(2.87), 전문서적(2.81), 전문기관발행 홍보물(2.47), 문화센터(2.40), 시민사회단체(2.33), 관공서(2.27)순서로 조사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서울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YS 등(2005)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영양지식을 얻는 곳은 TV/라디오(56.6%)가 가장 많았고, 학교(25.4%), 가정(17.8%) 순이었다. 이는 대상은 다르지만 영양관련 지식을 가장 많이 얻는 경로가 대중매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에서도 대중매체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서울지역 가정주부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Hwang EJ (2008)의 연구에 의하면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정보획득의 용이성 결과로「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주변에서」「신문, 잡지, 서적」「인터넷」

<Table 7>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for the awareness of main items of safety index for children's dietary life

Source	Sum of square	df	MS	F-value	Tests of within-subjects contrasts[2)]
The lower bound estimate	113.285	1.000	113.285	68.794***	[1)]A>B>C
Greenhouse- Geisser	113.285	1.854	61.094	68.794***	

***p<.001
[1)]Refer to <Table 6>, [2)]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8> Information sources about the safety of children's dietary life

Mean±SD

	Category	Family & friends	School	Public office	Special books	Mass media	Cultural center	Publication of professional agency	Civil social groups
Job	none	3.13±1.036	2.91±.892	2.26±.848	2.81±1.025	3.52±.889	2.41±.977	2.52±.923	2.35±.944
	worker	3.20±1.086	2.82±.970	2.29±.904	2.81±1.161	3.50±1.036	2.39±1.023	2.42±.946	2.31±.998
	t(p)	-.530(.597)	.823(.411)	-.339(.735)	.014(.989)	.225(.822)	.181(.856)	.983(.327)	.351(.726)
Family members	single generation family	3.17±1.081	2.88±.937	2.27±.886	2.76±1.100	3.50±.976	2.40±1.017	2.44±.898	2.32±.963
	multi generation family	3.14±.948	2.82±.896	2.30±.814	3.08±1.007	3.56±.884	2.38±.901	2.66±1.099	2.38±1.008
	t(p)	.178(.859)	.390(.697)	-.245(.806)	-1.915(.056)	-.379(.705)	.144(.885)	-1.532(.126)	-.404(.686)
Average frequency in dining out	less than 3 times a week	3.04±.961	2.81±.953	2.21±.939	2.88±1.130	3.54±.893	2.26±.925	2.37±.947	2.32±1.042
	more than 3 times a week	3.23±1.103	2.89±.919	2.31±.839	2.78±1.071	3.50±.996	2.47±1.029	2.53±.925	2.33±.932
	t(p)	-1.530(.127)	-.738(.461)	-.968(.334)	.797(.426)	.389(.698)	-1.752(.081)	-1.375(.170)	-.149(.882)
Monthly income (million won)	< 200	2.75±1.035	2.63±1.061	1.75±.707	2.13±.991[a1)]	3.13±.354	2.00±1.069	2.00±.756	2.25±1.035
	200 ~ 400	3.11±1.002	3.03±.941	2.40±.883	2.63±1.075[ab]	3.47±.964	2.41±1.022	2.41±.942	2.34±1.038
	400 ~ 600	3.13±1.126	2.85±.974	2.15±.879	2.84±1.131[b]	3.42±.975	2.37±.980	2.47±.872	2.25±.894
	600 ≤	3.31±1.051	2.69±.820	2.30±.845	3.03±1.016[b]	3.71±.956	2.45±.989	2.61±.996	2.42±.963
	F(p)	1.145(.331)	2.612(.051)	2.529(.057)	3.337(.020)*	2.078(.103)	.539(.656)	1.455(.227)	.470(.704)
Age (years)	< 30	3.00±.953	2.67±.778	2.67±.778	2.92±.900	3.00±1.044[a]	2.50±.674	2.50±.674	2.58±.669
	30 ~ 40	3.31±1.202	2.91±.939	2.25±.867	2.93±1.178	3.64±1.038[b]	2.37±1.060	2.48±.973	2.18±.942
	40 ~ 50	3.12±.924	2.89±.960	2.28±.921	2.74±1.071	3.51±.875[b]	2.43±.976	2.50±.940	2.46±1.022
	50 ≤	2.81±.910	2.65±.798	2.19±.703	2.55±.768	3.16±.820[a]	2.35±.950	2.32±.832	2.32±.871
	F(p)	2.237(.084)	.907(.438)	.929(.427)	1.319(.268)	3.387(.018)*	.151(.929)	.319(.811)	2.259(.082)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05±1.026	3.14±.976	2.14±.976	2.73±1.097	3.46±.900	2.41±1.189	2.38±1.010	2.14±1.004[ab]
	college	3.14±1.045	2.84±.929	2.30±.861	2.79±1.088	3.51±.976	2.45±.954	2.53±.915	2.42±.960[b]
	graduate school or higher	3.47±1.158	2.78±.866	2.19±.856	3.03±1.108	3.56±.939	2.06±1.040	2.17±.941	1.94±.893[a]
	F(p)	1.819(.164)	1.819(.164)	.763(.467)	.858(.425)	.092(.912)	2.454(.088)	2.689(.070)	4.652(.010)*
	Total	3.16±1.059	2.87±.930	2.27±.874	2.81±1.091	3.51±.961	2.40±.998	2.47±.934	2.33±.969

*p<.05
1)Means in each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D) of ratio using 5-point scale(1: negative, 5: positive)

「학교교육」 순으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식품관련기관 즉 정부 및 민간기관의 홍보물을 정보획득의 매체로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1%에 불과해 정부차원에서 주부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는 대중매체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관공서에서 얻고 있는 정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정부차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같은 맥락을 보여주었다.

2)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 희망 주제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을 받게 될 경우,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주제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9>와 같다. 식품영양정보에 대해서는 22.2%, 질병예방관련영양정보 20.3%, 위생적인 식생활 정보 25.6%, 가공식품영양표시제정보 32.0%로 나타났고, 일반적 사항에 따라 전업주부는 가공식품영양표시제정보에, 직장인은 위생적인 식생활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p<.05).

교육받기 원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충남 일부 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를 통한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Choi MJ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학부모와 학생이 영양교육에서 바라는 주제는 주로 '질병에 관한 임상영양정보(비만, 당뇨병 등)', '올바른 식습관(편식, 결식 등)', '식품의 영양정보'가 전체의 70%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반면 '가공 식품의 영양표시제에 관한 정보' 및 '친환경 농산물의 영양정보'에 대한 응답률은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 내용 중 식품 영양 정보(22.2%), 질병 예방에 관한 영양 정보(20.3%), 위생적인 식생활 정보(25.6%), 가공식품 영양표시제정보(32.0%)에 관심이 있다고 나타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유아 영양교육 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Lee GH(2009)의 연구에 의하면 영양교육에서 반드시

<Table 9> Preference for topics in food safety education

N(%)

Category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Disease prevention-related nutrition information	Hygienic diet information	Processed food nutrition information display issue	Total	χ^2 (p)
Job	none	45(27.4)	30(18.3)	30(18.3)	59(36.0)	164(100.0)	13.834** (.003)
	worker	25(16.4)	34(22.4)	51(33.6)	42(27.6)	152(100.0)	
Family members	single generation family	61(22.9)	50(18.8)	64(24.1)	91(34.2)	266(100.0)	6.504 (.090)
	multi generation family	9(18.0)	14(28.0)	17(34.0)	10(20.0)	50(100.0)	
Average frequency in dining out	less than three times a week	28(26.2)	25(23.4)	22(20.6)	32(29.9)	107(100.0)	3.789 (.285)
	more than 3 times a week	42(20.1)	39(18.7)	59(28.2)	69(33.0)	209(100.0)	
Monthly income (million won)	< 200	4(50.0)	1(12.5)	1(12.5)	2(25.0)	8(100.0)	6.601 (.679)
	200 ~ 400	24(20.7)	25(21.6)	32(27.6)	35(30.2)	116(100.0)	
	400 ~ 600	25(24.3)	20(19.4)	28(27.2)	30(29.1)	103(100.0)	
	600 ≤	17(19.1)	18(20.2)	20(22.5)	34(38.2)	89(100.0)	
Age(years)	< 30	5(41.7)	1(8.3)	3(25.0)	3(25.0)	12(100.0)	6.762 (.662)
	30 ~ 40	35(25.7)	28(20.6)	34(25.0)	39(28.7)	136(100.0)	
	40 ~ 50	24(17.5)	29(21.2)	37(27.0)	47(34.3)	137(100.0)	
	50 ≤	6(19.4)	6(19.4)	7(22.6)	12(38.7)	31(10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9(24.3)	9(24.3)	7(18.9)	12(32.4)	37(100.0)	1.474 (.961)
	college	54(22.2)	47(19.3)	65(26.7)	77(31.7)	243(100.0)	
	graduate school or higher	7(19.4)	8(22.2)	9(25.0)	12(33.3)	36(100.0)	
Total		70(22.2)	64(20.3)	81(25.6)	101(32.0)	316(100.0)	

**p<.01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 연구대상 교사의 58.6%가 '올바른 식습관'이라고 응답하였고, '성장과 영양'(25.6%), '질병에 대한 지식'(9.5%), '식품위생 및 안전'(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영양정보(22.2%), 질병예방관련영양정보(20.3%), 위생적인 식생활 정보(25.6%), 가공식품영양표시제정보(32.0%)로 식품영양관련 정보나 가공식품 영양표시제정보를 원하는 경향을 보인 본 연구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Lee GH(2009)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교사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효율적 홍보 방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학부모님들에게 알리는 효율적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10>에 제시하였다.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2.36)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학교 교육을 통한 홍보(2.22), 신문, 서적,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1.74), 인터넷을 통한 홍보(1.64), 판매제품을 통한 홍보(1.54), 교통수단의 광고를 통한 홍보(1.50) 순으로 조사되었다.

충남 일부 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를 통한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Choi MJ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학부모가 선호하는 영양교육 방법으로 '전문가 강의' 58.8%, '실습' 17.9%, '유인물' 8.3%, '캠프교실' 7.7%, '방송강좌' 4.4%, '전문서적 구독'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 매체나 학교교육을 통한 홍보를 가장 많이 선택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알리는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의미 있게 다루어야 할 결과로 보여 진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홍보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비만과 영양불균형 예방을 위해 시행된 이 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활용도가 높은 법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Table 10> The effective promotion of the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Mean±SD

	Category	Printed media (newspaper, books, magazine, etc.)	Internet	Broadcast media (TV, radio, etc.)	School education	Advertis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Sale products
Job	none	1.67±.750	1.65±.614	2.39±.728	2.18±.874	1.75±.622	1.46±.579
	worker	1.82±.769	1.62±.635	2.34±.786	2.25±.805	1.20±.632	1.63±.711
	t(p)	-1.295(.197)	.292(.771)	.576(.565)	-.635(.229)	2.050(.054)	-1.293(.199)
Family members	single generation family	1.77±.777	1.63±.632	2.40±.723	2.18±.850	1.52±.680	1.49±.635
	multi generation family	1.60±.675	1.67±.577	2.18±.886	2.39±.790	1.00± ·	1.80±.676
	t(p)	1.141(.256)	-.241(.810)	1.817(.070)	-1.431(.154)	.753(.460)	-1.699(.093)
Average frequency in dining out	less than 3 times a week	1.67±.774	1.59±.537	2.33±.724	2.33±.837	1.71±.951	1.47±.629
	more than 3 times a week	1.78±.755	1.66±.665	2.38±.771	2.15±.841	1.40±.507	1.58±.658
	t(p)	-.973(.332)	-.616(.539)	-.543(.587)	1.555(.121)	1.022(.319)	-.763(.447)
Monthly income (million won)	< 200	2.00±.707	1.50±.707	2.38±.916	2.00±.1.000	1.00± ·	1.67±.577
	200 ~ 400	1.73±.781	1.75±.659	2.34±.796	2.15±.847	1.43±.787	1.62±.639
	400 ~ 600	1.68±.754	1.54±.596	2.34±.753	2.28±.805	1.67±.707	1.60±.736
	600 ≤	1.79±.765	1.59±.591	2.43±.692	2.24±.885	1.40±.548	1.29±.463
	F(p)	.410(.746)	1.083(.359)	.286(.836)	.454(.715)	.394(.759)	1.433(.238)
Age (years)	< 30	2.13±.835	2.00±.000	2.30±.949	2.17±.983	1.00±.000	1.33±.577
	30 ~ 40	1.82±.778	1.70±.659	2.36±.733	2.17±.875	1.42±.515	1.56±.734
	40 ~ 50	1.66±.768	1.58±.593	2.36±.762	2.25±.826	1.60±.894	1.58±.587
	50 ≤	1.63±.597	1.43±.646	2.43±.774	2.29±.784	2.50±.707	1.29±.488
	F(p)	1.352(.259)	1.652(.180)	.113(.952)	.190(.903)	2.615(.083)	.523(.66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71±.726	1.60±.632	2.34±.838	2.10±.817	1.50±.707	1.75±.775
	college	1.74±.779	1.65±.629	2.34±.745	2.26±.837	1.44±.705	1.50±.605
	graduate school or higher	1.77±.710	1.61±.608	2.55±.723	2.00±.905	2.00±.000	1.50±.756
	F(p)	.025(.975)	.051(.950)	1.038(.356)	1.292(.277)	.590(.564)	994(.374)
Total		1.74±.762	1.64±.623	2.36±.755	2.22±.842	1.50±.673	1.54±.648

*p<.05, **p<.01

1)Means in each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D) of ratio using 5-point scale(1:very negative, 5:very positive)

조사대상자인 학부모는 특별법 여러 항목 중 정서적 유해식품의 판매진열 금지, 어린이 대상 식품 전담 관리원 역량 강화, 어린이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식품표시제도 도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기반의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에 대한 캠페인 및 교육·홍보 활성화, 아이와 학부모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영양교육 필요성에 대한 문항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관련 문항의 중요도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분야(2.48), 어린이 식생활 영양분야(1.82),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분야(1.70) 순으로 나타났고, 전업주부(2.57)와 핵가족(2.54)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분야를(p<.01), 확대가족(2.02)은 어린이 식생활 영양분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분야를 3가지로 구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분야(2.48)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는 대중매체(3.51), 가족 및 친구(3.16), 학교(2.87), 전문서적(2.81), 전문기관발행 홍보물(2.47), 문화센터(2.40), 시민사회단체(2.33), 관공서(2.27)순으로 나타났고, 월수입이 높을수록 전문서적을, 30세이상~50세미만은 대중매체를, 대졸의 경우 시민사회단체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을 받게 될 경우 위생적인 식생활 정보와 가공식품영양표시제정보를 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업주부는 가공식품 영양표시제정보에, 직장인은 위생적인 식생활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p<.05).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을 받게 될 경우 위생적인 식생활 정보와 가공식품 영양표시제 정보를 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업주부는 가공식품영양표시제정보에, 직장인은 위생적인 식생활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p<.0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효율적 방법에 대해서는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

보(2.36)와 학교 교육을 통한 홍보(2.22)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결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특별법 문항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분야에 특히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호식품 선택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특별법에 대한 효율적 홍보 방법으로 대중매체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SK(2012)의 연구에 의하면 학부모들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에 대한 책임이 판매제조 유통업자에 있다고 응답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주도로 학부모와 유통업체가 함께 연계하는 교육 및 홍보 방법이 여러 방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학부모들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관심은 여러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정부차원에서의 정보 제공부분은 활성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이후 학부모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한 교육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글 초록

본 연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홍보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인 학부모는 특별법 주요 문항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선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규격을 강화해야 한다'로 나타났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관련 문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전업주부와 핵가족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분야를 (p<.01), 대가족은 어린이 식생활 영양분야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는 주로 대중매체와 가족 및 친구로 나타났고, 월수입이 높을수록 전문서적을, 30세 이상~50세미만은 대중매체를, 대졸의 경우 시민사회단체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을 받게 될 경우 위생적인 식생활 정보와 가공식품영양표시제정보를 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업주부는 가공식품영양표시제정보에, 직장인은 위생적인 식생활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p<.0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와 학교 교육을 통한 홍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결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특별법에 대한 효율적 홍보 방법으로 대중매체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Choe JS, Lee MJ, Park YH (2010). Analysis of food and dietary educational content in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Korean J Food Culture* 25(4): 400-409

Choi MJ, Lee GD, Kim HN (2010). Development of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 for nutrition teacher in elementary school. *Korean J Food Culture* 20(1): 86-95

Cho SD, Kim SY, Lee EJ, Park HK, Kim MC, Kim GH (2008). Green food zone for children and suggesting a food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Safe Food* 3(1): 5-12

Chung HR, Kwak TK, Choi YS, Kim HY ,Lee JS, Choi JH ,Yi NY ,Kwon SH ,Choi YJ ,Lee SK

,Kang MH(2011).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a Children's Dietary Life Safety Index in Korea. *Korean J Nutr* 44(1): 49-60

Hwang EJ (2008). Food sanitation and HACCP Awareness evaluation of housewives in Seoul. Department of nutrition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76-84, Seoul

Kim BK, Park HR, Kim JW (2008). Development of comic books and an animation as dietary education materials for children. *Korean J Community Nutr* 13(5): 630-639

Kim HR (2010). An overview of food safety and nutrition policy for children ans tasks ahead. *Health & Welfare Policy Forum* 161 : 27-36

Kim JH, Yoo TY (2008).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of food safe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 Culinary Res* 14(2): 249-261

Kim YS, Rha YA (2005). A study for dietary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by gender. *Korean J Culinary Res* 11(4): 77-91

Lee GH (2009). An analysis of teachers` awareness of the realities of nutrition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Korean J Soc Early Childhood Edu* 13(3): 69-96

Lee SK (2012). The effect of nutrition standards of high-calorie foods with low-nutritional value on the domestic distribution of children's preferred food.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35-157, Seoul

Lee SS, Yang DS, Lee JH, Lee YH, Heo SK (2012). Perceptions of the Retailers within Green Food Zone on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J Food Hygiene & Safety* 27(1): 55-62

Pyun JS, Lee KH, Park DY, Choi HY (2008): Maternal Needs Assessment for Developing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Preschoolers. *The Spring·Autumn Conference J Korea Community Nutr* (2): 157

Yi SJ (2009). A Study on the contents and legal problems of the children food preference management system under the 'Special act on children eating habit safety management'.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 10(4): 327-350

Yun JH, Cho SD, Kim SY, Lee EJ, Park HK, Kim MC, Kim GH (2008). Study on suggestions for the nutritional and hygienic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certification in children's preferable food. *J Korean Soc Food Sci & Nutr* 37(5): 589-597

국가법령정보센터, Special act on children eating habit safety management, Assessed. December. 2011,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2012년 08월 07일 접 수
2012년 09월 11일 1차 논문수정
2012년 10월 03일 2차 논문수정
2012년 10월 10일 게 재 확 정